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진
한국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지난 14일 국가우주개발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사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시사했다.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바치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고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만 서면 언제든 발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북한은 네 차례 인공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빠르게는 40일 전, 늦게는 10일 전에 구체적인 발사 장소와 포괄적인 날짜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장소와 날짜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북한이 보도한 시간은 위성들의 아침 10시이

로켓 발사와 이산가족 상봉 분리 대응해야

다. 황중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이다.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탐색해 보려는 전략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핵심협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북한에게 9·19 공동성명과 유엔 대북결의안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우려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심협 언급 이후 평양이든 제3국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미국의 대화 제의는 북한에 대한 책임 전가와 압박 명분으로 활용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강화는 핵심협의 명분으로 활용할 듯하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3단계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10월 1일부

터 수만 명의 사회주의청년동맹원들을 동원한 햇불행진이다. 사회주의청년동맹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후유병이면서 젊은 조선의 상징이다.

2단계는 10월 5일 전용 인공위성을 포함 한 장거리 로켓 발사이다. 인공위성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혼 관철, 과학 중시와 병진 노선의 상징, 핵심협의 명분 유도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3단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열병식이다. 열병식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 동원과 역대 최고의 신형 무기를 선보이면서 위력을 과시할 듯하다. 새로운 정책, 노선, 당·정·군의 조직과 인사 개편을 통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의 한반도는 대결을 지속할 것인가, 대화로 전환할 것인가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듯하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예상되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는 자명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략적 접근이다. 우리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을 준수할 책무도 있지만 정전체제하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도 있다. 국제사회는 이산가족과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기 때마다 정치 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밝혀 왔다. 10월 이산가족상봉 여부는 박근혜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 정부가 로켓 발사와 같은 군사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분리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지지는 배가될 것이다.

8·25 합의는 당국 간의 대화와 민간급의 교류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했다. 북한도 조건 없는 6자회담을 주장하여 왔다. 중국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역설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개념이다.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 현상을 철학적으로 규명한 김수환 박사는 소통·안정·성장이라는 질차적 개념을 강조한다. 소통(대화·교류)이 신뢰를 형성하고, 신뢰는 안정의 영역(정치·경제·사회·군사 등)을 확대하며, 안정은 남북한의 동시성장을 이끌면서 평화통일로 나아간다. 평화통일 프로젝트는 소통에서 시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료칼럼



강 채 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살이 찌는 계절이라고 한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몸이 붙어날 위험도 있지만, 가을은 다이어트와 운동하기에 좋은 적기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면 식욕이 왕성해져 과식하기 쉽다. 또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신체는 서서히 혈관이 수축되고 지방층이 두터워지게 된다. 때문에 가을에 건강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자칫과체중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한다며 체내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며, 큰 근육들이 사용되는 운동이 효과적이긴데 속보다 조깅 등이 좋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체중감량에

가을 비만 탈출

욕심이 많아 운동 강도를 갑자기 높이는 경우가 많다. 걷기와 같이 강도가 낮은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경우 무릎이나 발목과 같은 관절부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강도가 높으면 운동을 장시간 할 수 없다.

운동후에는 고단백 식품으로 영양을 보충해야 하는데, 산란기 직전인 가을철 생선은 기름지고 맛있으며 단백질이 풍부해 부족한 영양을 보충할 수 있다. 가을 계절 생선으로는 삼치, 꽂치, 갈치, 고등어, 미꾸라지, 오징어가 있는데 다양한 조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또한 밥, 대추, 버섯, 토란 등 계절 식품으로 밥밥, 고구마밥 등을 만들어 식단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에도 도라지, 더덕, 연근, 우엉 등의 뿌리채소는 섬유소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칼로리가 낮으므로 반찬으로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과실류가 풍성한 계절인 가을에는 배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추천한다. 배는 이뇨작용뿐만 아니라 씹으면 포배도 소화한 축즙의 ‘석세포’는 일종의 식이섬유와 같은 작용으로 쾌변에 좋다. 배는 90%가량

이 수분으로 비타민, 칼슘, 인, 철분 등의 영양소도 들어 있다.

한방에서는 비만을 몸속 면역체계가 무너진데 따른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체내 독소부터 정화해야 한다.

한방 해독다이어트는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체내 유해 노폐물을 정화해 살빼기를 돕는 원리다. 또한 만성변비, 소화기능저하, 신진대사 이상 등의 신체 불균형을 바로 잡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영양소뿐만 아니라 열량, 트랜스지방 등 각종 유해성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음식을 통해 섭취된 독소들은 몸의 전체적인 리프나 혈액순환 등을 둔화시키고 정체시켜 체중을 늘리는데 주력한다. 때문에 나쁜 독소를 해독해주는 것만으로도 균형 잡힌 실루엣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방해독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간해독과 정해독이다. 간해독은 간에 쌓여 있는 각종 노폐물을 제거하는 간정화요법으로 비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간기능 강화로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사라진다. 또한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혈액이 맑아져 지방 소화자 잘돼 배변활동이 좋아진다.

장해독은 장내의 오랫동안 누적된 숙변을 제거해 세균의 활성화와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해독 치료다. 해독과 병행하는 한약치료는 몸속의 잉여 지방을 에너지화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 모든 다이어트가 저열량 다이어트인 것을 감안할 때, 열량을 줄일 때의 근육 손실량을 최대한 줄이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또한 비만 환자들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대사를 저하와 순환부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기약(補氣藥)들도 이뤄져 열량을 줄이면서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다.

해독치료와 함께 식단 및 운동도 함께 병행돼야 즐겁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소화기 질환이나 자궁 쪽 질환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화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식욕 증추에 문제가 생겨 식사량이 많고 폭식 경향이 있는 사람이나, 자궁이 허냉해 아랫배가 볼록하면 서 하체쪽으로 살이 많이 찌는 분들은 근본적으로 위장과 자궁을 치료해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다. 적당한 운동, 균형 있는 식단, 한방 해독다이어트라면 즐겁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기고



신 용 진
IOCTC2015 위원장·조선대물리학과 교수

UN이 지정한 ‘세계 빛의 해’를 맞이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해 14회째를 맞이하는 ‘2015국제광산업전람회’와 함께 개최되는 ‘2015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IOCTC2015)’가 오는 10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을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에 관하여 최신 광기술정보제공은 물론 광산업 미래기술 전망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2개의 기초강연을 준비했다. 최근 광융합기술로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중의 하나인 차세대 3차원 디스플레이 (Challenges for next-generation 3D displays)에 관하여 일본 동경대의 Yasuhiro Tskaki 교수가, 세계적인 바이오포토닉스분야 전

광산업 미래 보는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

문 연구소인 미국 UC Irvine 대학 베크만 연구소의 Bruce J. Tromberg 소장(이)의 료광학기술 (Engineering medical optics benchtop to bedside)에 관하여 기초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한 본 컨퍼런스는 레이저, 광통신, OLED/LED, 바이오 포토닉스 등 분야별 국내외 최고 전문가 16명의 발표가 크게 3개 섹션으로 나뉘어서 이틀간 열리게 된다.

제 1섹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세계 빛의 해 활동상황’ (The international year of the light-based technologies)에 관하여 세계 빛의 해 한국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이병호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과학기술 연구원(KIST) 이상배 박사는 한국의 광섬유 연구동향을 발표한다.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소(IFS-GIST) 남창희 소장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표준연구원(KRISS) 이윤우 박사의 ‘우주광학(Space Optics)에 관하여’ 등 우리나라 광 관련 최고 전문가들의 ‘세계 빛의 해’ 기념강연도 들을 수 있다.

둘째 날(10월 8일) 오전에 시작되는 제 2섹션은 광통신 부품에 관하여 프랑스 JDSU의 Michel Bouquain 가 섬유광학의 표준 (Challenges for fibre optics standardisation), 광의 군사용 적용에 대

해 고등광기술연구소(APRI) 이영락 박사의 산업용 군사용 레이저 기술 및 개발 현황(Laser technology & development status for industry and military), 최근 국가 융합과제로 선정되고 신산업으로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3차원 프린팅(3D printing)에 대해 기계연구원(KIMM) 최원기박사에 의하여 산업전망을 들을 수 있으며, 생산현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적용하는 레이저 미세가공 (Laser micro-machining systems for electronics industry)에 대해 미국 ESI의 Habin Zhang이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 오후에 시작되는 제 3섹션은 OLED의 창시자인 일본 아미기타현 부립 대학 키도 준지(Junki Kido) 교수의 OLED의 핵심(OLED main issue)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최범호박사의 국내 OLED 조명산업 현황(STATUS of domestic OLED lighting industry), 한국조명디자인협회(KALD) 정미박사의 LED조명 디자인 현황(Status of LED lighting design) 등 OLED/LED 분야의 발표가 있겠으며, 미국 베크만연구소의 Bruce J. Tromberg 소장이 의료광기술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재미과학자인 미국 하버드 의대 최희수 교

수의 의료광과 나노의학 (Targeted contrast agents in biophotonics and nanomedicine), 단국대병원 정필상박사의 광의로기기 (Translational research in medical photonic devices), 강북삼성병원 김원석박사의 피부과에서의 레이저 및 광 응용 (Laser and photonics in dermatologic field) 등 빛의 의학적 응용 분야인 의료광융합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광통신 부품 및 소재분야 국제전문회를 주도하고 있는 IOCTC 국제 전기 기술위원회) TC 86 정기총회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광산업진흥회 공동주관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병행 개최된다.

이와 함께 국제광산업전람회 및 본 국제광융합기술컨퍼런스(IOCTC) 기간 중 한국광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국립전파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등 19개 광산업클러스터 입주 연구지원 기관과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연계, 광산업육성지원기관의 홍보관 및 차세대 미래기술(OLED, 레이저, 무대조명 등) 체험관도 구성되어 향후 광산업분야 유망기술과 광산업의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세미나, 포럼 등이 예정돼 있다.

社說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특수 이어 가려면

9월 둘째 주 금요일 밤, A씨 부부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을 찾았다. 아시아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라인업 가운데 하나인 중국 경극 ‘홍등기’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늦은 밤 문화전당 광장에는 30여 명의 어린이가 분수 주변을 뛰어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도심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처럼 지난 4일 부분개관한 문화전당은 쇠락한 광주의 도심을 활기 넘치게 하는 ‘핫플레이스’로 변신시키고 있다. 실제로 개관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문화전당을 찾은 방문객들이 몰려들면서 인근 식당가와 커피전문점의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개관 특수가 ‘반짝 거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20일로 3주간의 개관 기념 페스티벌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이렇다 할 시설 콘텐츠와 후속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집중

되는 일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해 개관 효과가 반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에 따르면 예술극장은 개관 페스티벌 기간 동안 1만1000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고 어린이문화원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모두 7만4766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티켓을 구입하지 않은 단순 방문객까지 감안하면 문화전당을 방문한 시민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문화전당은 오는 12월 초 정식 개관까지 지금의 호재를 이어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후속 프로그램을 전후해 7080총장축전 인근 식당가와 커피전문점의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문화전당의 개관 특수가 ‘반짝 거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20일로 3주간의 개관 기념 페스티벌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이렇다 할 시설 콘텐츠와 후속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집중

차례상 준비, 전통시장 이용하면 ‘일석삼조’

추석(27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파는 거칠거칠 하고 살림살이는 갈수록 파락해지지만 추석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조상을 기리고 가족 간 정을 나누는 일은 중요한 연중행사이기 때문이다.

큰 명절인 추석을 지나려면 차례상을 마련이 필수다. 과거에는 손수 기른 곡식과 과일을 정성스레 준비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은 도회지에서 귀성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가정 이 많아 제수를 대부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래도 제수품을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대형마트에 비해 크게 저가를 줄일 수 있는 조사 결과도 나타났다.

가격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약 23만6000원이 들었다. 이는 지난해 23만5000원에 비해 약 0.5%

가량 상승한 수치로 거의 변동이 없다. 비용은 4인 가족 한 상을 기준으로 사과·배·대추 같은 과일과 쇠고기 등 육류 그리고 수산물을 포함한 35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반면 대형마트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면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형마트에서 같은 품목을 사려면 30만 3000여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에 비해 6만7000 원을 더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경제난 여파로 한 편이든 다음에 아껴야 하는 살림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전통시장만의 푸근함도 무시할 수 없다. 철저히 정갈제를 실시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예누리도 가능하다. 여기에 서로 흥정하며 사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담’이 있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다. 전통시장에서는 돈이 적게 들고, 명절 분위기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인까지 돕게 돼 일석삼조다.

無等鼓

오래전 도서박람회에 갔다 작가들의 방을 재현한 공간을 본 적이 있다. 시인 고은의 방은 그냥 책 더미였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책 무더기 속에 놓인 책상과 굵은 뱃대 안경. 고은이라는 사람과 ‘환상 공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상 속에서 그려 낸 딱 그의 방 모습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소설가 김훈의 방이었다. ‘닭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대한 육군 육군 기갑부대 문구가 철권에 적혀 있었고, 자전거 소품도 눈에 띄었다. 마음에 남았던 건 아주 작은 몽당열필과 지우개였

는 ‘이라는 단어를 새로 추가한 흔적 등 김훈의 ‘글씨’가 한눈에 보였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너무나도 유명한 정현종의 시 ‘섬’이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최근 발간된 정현충 시선집 ‘섬’에서 시를 읽었을 때였다. 책에는 시인의 대표작이 옥필과 함께 실려 있다.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 독 떨어져 굴러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도토리나무 언덕까지 두꺼비와’

무 언부가 꾸금해서’ 또 다른 작품 ‘안 읽고, 자전거 소품도 눈에 띄었다. 마음에 남았던 건 아주 작은 몽당열필과 지우개였

옥필원고

김훈은 지금도 연필로만 글을 쓴다.

오늘 열어 본 메일함엔 김훈의 신간 소식이 들어 있었다. ‘먹고 산다는 것의 안쪽을 들여다본 비애’라는 문구가 적힌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홍보 메일이였다. 제목만으로도 모든 걸 이야기해 주는 전자 ‘밥벌이의 지겨움’ 등 몇 권에 실린 글과 새 글들을 모은 책이었다.

사은품이 눈에 띄었다. 김훈의 옥필 원고 수첩 원고지 노트였다. 200자 원고지에 연필로 쓴 첫 문장은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라면, 김밥, 자장면을 먹어 왔다’였다. 띄어쓰기 표시, ‘쌈밥’, ‘나

부’ 역시 달리 읽혔다. 언젠가 인터뷰를 위해 만난 이창호 감독은 충추고 동창이었던 소. 설가 최인호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며 그의 ‘글씨’에 대해 말했다. 최 작가의 대표작 ‘별들의 고향’ ‘어제 내린 비’ 등을 영화로 만든 그는 소문난 옥필이었던 인호의 글을 해독할 수 있었던 건 자신과 인호의 형방에 얽혀있었다고 했다.

‘옥필(肉筆)의 사전적 의미는 ‘손으로 직접 쓴 글씨’다. 옥필은 단순한 ‘글씨’를 넘어 작가의 모든 데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꼭 작가들만은 아닐 터다. 우리가 남긴 ‘글씨’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지 않을까.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